亞細亞政策研究院(원장 閔寬植)주최 제3회 韓日관계세미나가 4일 同研究院회의실에서 개최됐다. 「韓日間의 상호이해」란 主題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知識人의 역할」「경제문제」「安全保障」등 3개分科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知識人의 역할」에선 日本平和安全保障연구소이사장 「이노키」(猪木正道)박사, 崔錫采문화방송京鄕新聞회장, 「경제문제」에선 金完淳고대교수, 日本日興리서치센터 「시시도」(宍戸壽雄)이사장, 「安全保障」에선 「나카지마」(中嶋嶺雄)교수, 吉昇欽서울대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서로文化를 바르게 알자

—「韓日間의相互理解」세미나—

79. 6. 5 東亜

東亜日報-1979.06.05

文化에 두나라 創造的協力을

貿易逆調심화 누구도 得없어

「韓美日협의체」빨리 추진해야

知識人의 역할

「이노키」씨

金相浹高大총장 사회로 열린 「知識人의 役割」토론에서 「이노키」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日本知識人의 대부분이 1960년대까지 「러시아」型의 反體制的인텔리겐차의 性向에 휩쓸려 容共的이며 親北韓的 反大韓民國的이었으나 그후 점차 주변정세의 현실을 경험함에 따라 空虛한 현실추종을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韓國이 日本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심각하게 安保문제를 다루고 자유세계의 방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日本지식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日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알맞는 책임을 수행해야 할것이라는 自覺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日本지식인의 사명은 空想的平和主義 空想的軍國主義에 빠지지않도록 역사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국가에 수치없는 괴로움을 끼치지않도록 배려를 하면서 虛構의 世界로부터 現實의 世界로 복귀하기위해 응분의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역설했다。「이노키」박사는 또 『80년대중반 韓國의 경제력은 北韓보다 10배가량 신장될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韓國이 정치적 안정과 군사력의 충실을 전제로 한다면 80년대 후반경엔 北으로부터의 군사적위협은 완전히 극복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韓日양국의 지식인들이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유세계의 우방으로서 共存共榮할 결의를 굳힌다면 兩國은 東「아시아」와 全世界의 平和를위해 강력한 雙璧이 될수있을 것』이라면서 『이를위한 상호이해를 두텁게 하는 길은 서로 相對國의 文化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文化財의 교환전시、양국지식인의 文化創造협력이 시급하다면서 「隣接國關係論」같은 테마를 공동으로 연구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崔錫采씨

崔錫采회장은 『韓日양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인연을 맺고는 있지만 바로 이 이유때문에 문제점을 過小評價하고 모순을 발견해도 개선하려 하지 않는 病的인 要素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제사회에서의 日本의 「재치있는 方向轉換」은 세계의 흐름을 빠르게 포착하고 處身이 能하다는 의미에서 주변국가들로부터 찬탄의 대상이 되고있지만 「國際信義」란 면에서 과연 日本은 믿을수 있는 「友邦인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하고 中共접근을 위한 自由中國과의 斷交를 예로 들었다。

崔회장은 이어 『日本은 엄연한 「아시아」국가이면서도 歐美文化존중에 너무나 치우쳐 정치 경제 문화 체육등 모든 분야에서 마치 歐美人처럼 「아시아」를 업신 여기고 내려다보는 지식층이 많다」면서 『그 대표적 실례가 日本매스컴의 보도태도」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자세는 많은 「아시아」인의 비위를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韓國은 분명히 日本엔 「外國」인데도 마치 日本의 延長線에 있는 것이라 착각、「한국에 와보니 日本과 똑같다」고 말하는 日本지식인이 많다」면서 『이러한 倒錯된 對韓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한 韓日間의 상호이해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崔회장은 日本人들이 韓國을 「外國아닌 外國」으로 그릇된 인식을 하게된데에는 한국 「日語世代」의 잘못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지식인들중 특히 「日語世代」의 一言一句 一擧一動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自省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앞으로 韓日間문제의 관건은 한국의 國力培養」이라면서 『정치 경제 문화등 여러분야에서 韓國力이 강해질때 日本도 韓國을 우러러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經濟문제

金完淳씨

李賢宰서울대교수사회로 열린 「韓日貿易逆調의 現象과 展望」토론에서 金完淳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逆調의 요인으로 수입면에서 ①日本상품이 특히 機械類의 輸入價格이 安定된점 ②지리적으로 가까와 주요물자의 適期供給을 日本에 의존해야 되는 사정 ③해외의 시장정보망을 갖추지못한 群小무역업자에 의해 주로 對日輸入이 이루어지고 있는점등을 들고、반대로 對日輸出이 부진한 요인으로는 ①日本의 수입규제조치 ②對日수출품에 대한 韓國의 소득탄력성이 對日수출품에 대한 日本의 소득탄력성보다 높은 韓日산업구조내지 무역구조상의 특징등을 들었다。

그는 貿易逆調의 해소방법은 장기적으로 日本이 서비스산업과 특수기계부문을 주축으로 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게되고 동시에 용역수출을 母體로 하는 무역구조의 지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단기적인 시정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韓日간의 貿易逆調시정노력이 出超國의 무성의와 入超國의 무리한 輸入先多邊化정책때문에 그 진전을 못보게되면 이는 양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무역의 축소만을 의미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入超國인 韓國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出超國인 日本은 貿物去來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自國내의 輸入市場을 실질적으로 개방시키고 또한 貿易收支의 赤字를 補塡할수 있는 資本去來의 조정을 통하여 低利의 장기산업차관을 韓國에 제공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시도」씨

「시시도」씨는 「中進國문제와 韓日協力에 있어서 취해야할 길」에서 韓日협력의 新局面조성을 위해 ①政府資金보다는 起債와 직접투자 ②양국의 産業調整협의 ③기술협력과 병행한 硏究協力 ④韓國의 産業정책변화 ⑤경제교류에 병행하는 문화교류를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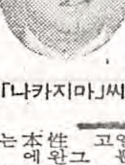
그는 과거 韓國은 日本으로부터 정부자금을 받아왔으나 지금은 通貨가치의 안정으로 보아 日本의 資本市場에서 起債하거나 韓國의 資本市場에 日本의 자금을 유도할수 있는 국면에 왔다고 진단했다。그는 韓日양국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초점은 日本이 韓國의 공업제품에 대해서 市場개방을 어느정도 하느냐는것이며 日本은 韓國의 勞動集約性산업제품이 언젠가는 日本의 산업을 덮치리라고 생각하여 産業調整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美日간의 경제마찰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日本産業의 集中的輸出急增패턴에 있다면서 韓國의 수출정책도 잘못된 日本의 무역정책의 전철을 밟지말고 계획적으로 수출확대를 시도해야 할것이라고 충고했다。

「시시도」씨는 과학및 기술의 연구기관을 위한 자금원조와 韓日양국 연구원의 상호연구와 공동연구、교환을 정부베이스로 실행하고 정치 經濟가 토대로 하고 있는 가치적 및 문화적인 基盤의 차이가 자칫하면 상호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식인의 상호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韓國의 産業정책이 특정의 산업에 집중되어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成長중시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20년은 계속되겠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의 안정과 국민의 복지를 보다 더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安全保障


「나카지마」씨

「이노키」박사 사회로 열린 「亞細亞의 국제환경변화와 韓半島」토론의 주제발표에서 「나카지마」교수는 地政學的으로 蒙古와 新疆이 中蘇간의 「中間地帶」였다면 韓半島는 中蘇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緩衝地帶라고 보고 그때문에 韓半島의 地政學的 위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완충지대는 列國利害의 균형위에서 성립하는 「眞空지대」이기 때문에 列國이 그와같은 완충지대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려는 충동이 있긴 하나 한번 주위의 균형이 붕괴되기만하면 완충지대는 「戰略抗爭」의 장소로서 철저한 희생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관련、韓半島의 「危機」는 물리적인 군사행동을 충분히 억지할수있는 안전보장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진정한 위기는 南北韓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1972년의 획기적인 남북한회담에 의하여 남북쌍방이 스스로의 눈으로 상대방존재의 크기를 파악한것이 도리어 오늘날 南北간의 강렬한 경쟁의식과 긴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危機의 內在性이야말로 韓半島문제의 진정한 어려움이 되고있으며 이 內在性이 있는한 韓半島의 무거운 현실은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日本의 安全保障을 고려해서라도 日本人들은 韓半島문제가 「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吉昇欽씨

吉昇欽교수는 「카터」행정부의 駐韓美軍철수와 日本의 반응에서 日本외무성을 중심으로한 對外觀은 최근 형성된 「美日中3각관계」가 「아시안」및 韓半島의 평화와 안전증진에 기여를 하고있다는데 기본적인 가정을 두고 있어서인지 종종 撤軍促進발언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吉교수는 이와관련、韓國은 日本의 방위력 증강태도에 지나친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최근 日本이 美國의 「책임분담」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은 對美안보협력일뿐 對韓안보협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韓國은 北傀의 好戰性완화를 전제로 한 철군이 日本에 得이라는 점을 납득시키는 노력과 日本內에서 최근 右傾化하고 있는 中立野黨들과의 접촉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할것을 주장했다。그는 北韓의 好戰性완화를 전제로 하지않은 南北對話、日北傀관계 긴밀화는 日本에 得이 될수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日本의 中立野黨중 韓日의원연맹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民社黨외에도 최근 反韓그룹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公明黨과도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말 서울에서 형성된 韓日의원안보협의회에서 거론된 韓美日의원안보협의체 구성은 이 협의체에 참가하게될 美의원들이 「카터」행정부의 철군반대무드를 확대시킬수 있기때문에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